

청소년의 지역 문화 향유 경험을 통한 지역예술 자생성 확보 및 체험형 애향심 고취 방안 보고서

1. 서론: 지역 소멸 위기와 문화 정책의 구조적 딜레마

1.1. 연구의 배경: '문화적 공동화(Cultural Hollow)'와 지방의 위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다. 그러나 물리적 인구의 감소보다 선행되는 것이 바로 '문화적 공동화' 현상이다. 청년 세대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의 빈곤과 매력도 저하에 기인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더 이상 도로와 항만 같은 물리적 인프라(SOC)가 아니라, 삶의 질을 규정하는 문화적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이다.

특히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인접 도시는 서울이라는 거대 문화 블랙홀로 인해 청년층의 문화 소비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극심하다.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청년들의 문화 예술 관람 활동은 지역 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타 대도시(주로 서울)로 이동하여 향유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난다.¹ 이는 지역 내에 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 등 하드웨어는 확충되었으나, 그 공간을 채우는 콘텐츠가 청년들의 눈높이나 기호(Taste)와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¹

1.2. 문제 제기: 공급 위주(Supply-side) 정책의 한계

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그

정책의 기조는 철저히 '공급 위주'였다.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지역 예술단체에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며, 무료 공연을 개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단기적으로 연명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자생적인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²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없는 '과잉 공급' 상태에서, 지역 예술 단체들은 공공 보조금 없이는 단 한 번의 공연도 올리기 힘든 '보조금 의존형 구조'로 고착화되었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지역 예술은 무료거나 저렴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격 인식을 심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지역 예술의 시장 가치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유효 수요(Effective Demand)가 뒷받침되지 않는 공급 확대는 시장 왜곡을 낳을 뿐이다.

1.3.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수요 창출과 체험형 애향심

본 발제문은 이러한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를 경제학적(보몰의 비용 질병), 사회학적(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지리학적(장소 애착)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 창출(Demand Creation)'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미래의 문화 소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 예술 체험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인 '애향심(Local Patriotism)'을 형성하는 핵심 기제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청소년 지역예술 체험단(Youth Local Art Experience Corps)'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을 수동적인 관객에서 능동적인 비평가이자 지역 문화의 옹호자로 성장시키며, 지역 예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문화경제학적 분석: 보몰의 비용 질병과 보조금의 역설

2.1.1. 보몰의 비용 질병(Baumol's Cost Disease)의 메커니즘

지역 예술 정책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윌리엄 보몰(William Baumol)과 윌리엄 보웬(William Bowen)이 제시한 '보몰의 비용 질병' 이론을 이해해야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는

생산성 향상이 빠른 '진보적 부문(Progressive Sector, 예: 제조업)'과 생산성 향상이 더딘 '정체된 부문(Stagnant Sector, 예: 공연예술, 교육)'으로 나뉜다.³

제조업은 기술 혁신과 자본 투입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공연 예술은 인간의 노동력이 핵심 투입 요소이며, 그 자체가 최종 생산물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현악 4 중주를 연주하는 데 필요한 연주자 수(4 명)와 소요 시간(약 30 분)은 18 세기나 21 세기나 동일하다. 이를 줄이는 것은 곧 작품의 질적 저하를 의미한다.⁴

문제는 '임금의 동조화' 현상이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사회 전반의 임금 수준이 상승하면, 노동 시장의 통합성으로 인해 예술 분야의 임금도 함께 상승해야 한다.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상승하므로, 예술 상품의 단위당 생산 비용(Unit Cost)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한다.⁵

2.1.2. 공급 위주 정책의 한계와 재정적 압박

보물의 비용 질병은 지역 예술 단체에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강요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단체들은 티켓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추거나, 외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트릴레마(Trilemma)'에 빠진다.³ 그동안 정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해왔다. 그러나⁶에서 지적하듯이, 공공 부문의 생산성 역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금에 의존한 무한정 지원은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의 위기에 봉착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효용이 즉각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예술 지원 예산은 삭감의 1 순위가 된다.

구분	진보적 부문 (제조업)	정체된 부문 (공연예술)	지역 예술 정책의 시사점
생산성	기술 혁신으로 급증	노동 집약적, 불변	생산성 향상을 강요할 수 없음
비용 구조	단위당 비용 하락	단위당 비용 지속 상승	만성적 비용 압박 발생
가격 정책	가격 인하 가능	가격 인상 압력 상존	티켓 가격 상승 불가피
해결책	기술 투자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 확보	관객 개발을 통한 지불 의사 증대

2.1.3. 수요 중심 해법: 가격 탄력성의 극복

보물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경제학적 해법은 *****가치 인식의 전환*****에 있다. 만약 소비자들이 예술 상품을 단순한 여가재가 아닌, 교육이나 건강처럼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로 인식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수요의 가격 비탄력성), 비용 상승분은 가격 전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다.⁷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공급(예술가 지원)에서 수요(관객 육성)로 이동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예술을 '비싸더라도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교육과 경험의 축적이 절실하다.

2.2. 문화사회학적 분석: 아비투스(habitus)와 문화자본의 재생산

2.2.1.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와 청소년기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문화적 취향이 개인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 속에서 체화된 성향 체계, 즉 ****아비투스(Habitus)****라고 정의했다.⁹ 아비투스는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

- **어릴 때 지역 예술을 자주 접한 아이:** 지역의 공연장과 미술관을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향유하는 아비투스를 갖게 된다.
- **문화적 경험이 박탈된 아이:** 예술 공간을 '나와 상관없는 불편한 공간', '지루한 곳'으로 인식하며, 지역 문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갖게 된다.

청소년기는 이러한 아비투스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이다.⁹ 이 시기에 형성된 문화적 성향은 평생 지속되며, 계층 간 문화 격차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한다.¹⁰

2.2.2. 지역 문화자본(Local Cultural Capital)의 결핍과 역외 유출

현재 지역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와 글로벌 플랫폼(Netflix, YouTube 등)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상업 문화나 글로벌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다.¹ 반면,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접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지역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는 즐길 문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성인이 된 후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서울로 이주하거나 소비를 유출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 예술 정책은 청소년들에게 '지역 문화 자본'을 체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지역 예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Taste)을 기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2.3. 장소성(Place)과 애향심의 현대적 재구성

2.3.1. 공간(Space)에서 장소(Place)로

인문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은 물리적 위치인 '공간(Space)'에 인간의 경험과 기억, 감정이 부여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장소(Place)'가 된다고 주장했다.¹¹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은 단순히 행정 구역상의 주소(Space)일 뿐,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장소(Place)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3.2. 예술 경험을 통한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 형성

예술 경험은 공간을 장소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매개체이다.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보고, 지역 풍경을 소재로 한 전시를 관람하고, 지역 예술가와 교류하는 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새롭게 감각하고 기억하게 만든다.¹³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정주 의지, 공동체 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⁴

2.3.3. '체험형 애향심'의 개념화

본 발제문에서 제안하는 '체험형 애향심'은 과거의 국가주의적 애국심이나 맹목적인 지역주의와는 다르다. 이는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나에게 즐겁고 유익하다*****는 긍정적 정서 경험(Affective Experience)에 기반한 자발적 애착(Place Attachment)이다.¹⁶ 즐거운 문화적 경험이 축적될 때, 지역은 '떠나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 '자랑하고 싶은 곳'으로 재정의된다.

3. 지역 문화예술 향유 실태 및 현행 정책의 문제점 분석

3.1. 인천 청년 문화향유 실태 분석: 역외 유출과 미스매치

인천연구원의 『인천 청년 문화향유 실태 연구』(2021) 및 관련 통계¹를 분석한 결과, 인천 지역의 문화 향유 실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분석 항목	주요 현황 및 데이터	시사점
활동 지역	문화예술 관람 지역은 인천 내부 비중이 높으나, 타 대도시(서울)로의 이탈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	수도권 전철 등 교통 편의성으로 인한 '빨대 효과' 및 서울 문화 선호 현상
소비 패턴	20~30 대의 경우 OTT 등 온라인 매체 이용률 압도적, 오프라인 관람은 소극적	오프라인 지역 예술 공간이 청년층의 디지털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지 못함
참여 경험	단순 관람 외에 동호회, 교육, 창작 등 직접 참여 경험 전무에 가까움	소비자는 있으나 능동적 생산자/매개자가 부재함
장애 요인	**비용 부담(Cost)**과 시간 부족(Time), 정보 부족(Information)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정책 필요
생애 주기	아동기·청소년기에 있던 학교 연계 예술 교육이 청년기 진입과 동시에 단절	입시 위주 교육 후 성인기 문화 향유로 이어지는 '사다리' 붕괴

3.2. 현행 지역 예술 정책의 한계 진단

3.2.1.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 도시 조성

인천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문화 도시'를 표방하며 아트센터,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건립 위주의 정책은 운영 콘텐츠 부재와 관객 부족이라는 '상자 속의 빈곤'을 초래했다. 하드웨어는 완공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비용 유발 요인이지만, 관객(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대되는 자산임을 간과한 결과이다.

3.2.2. 공급자(예술가) 중심의 지원 체계

현재의 지원 정책은 주로 예술가에게 '창작 지원금'을 주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 1,800 명 이상의 청년 예술인이 등록되어 있으나¹⁷, 이들이 생산한 작품이 지역민과 만나는 접점은 매우 협소하다.

- **문제점:** 작품을 만들어도 봐줄 관객이 없다. 예술가는 지원금 정산을 위한 '실적용 공연'을 하고, 관객은 동원된 지인들뿐인 '그들만의 리그'가 반복된다.
- **결과:** 지원금이 끊기면 활동이 중단되는 자생력 부재 현상이 심화된다.²

3.2.3. 청소년 프로그램의 단발성 및 형식성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기존의 지역 연계 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¹⁸

- **지속성 부족:** 대부분 학기 단위나 단기 프로젝트로 운영되어, 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문화 향유 습관(Habitus)을 형성하기 어렵다.
- **수동적 참여:** 관람이나 단순 체험 위주로 구성되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비평하거나 기획에 참여하는 '능동적 향유자'로 성장할 기회가 부족하다.
- **연계성 부족:**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 예술 활동이 유리되어 있어, 학교 밖에서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한다.

4. 정책 제언: '청소년 지역예술 체험단' 프로젝트

4.1. 프로젝트 비전 및 목표: 'Art-Link Youth'

본 연구는 위기의 지역 예술 생태계를 구원할 핵심 열쇠로 '청소년'을 지목하며, 이들을 조직화된 문화 소비 주체로 육성하는 '청소년 지역예술 체험단(가칭: Art-Link Youth Incheon)'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 **비전:** 지역 예술을 즐기고, 지역을 사랑하는 미래의 문화 시민(Cultivated Citizen) 육성

- **핵심 목표:**

1. **수요 창출(Demand Creation):** 청소년을 잠재적 관객에서 적극적 소비자로 전환.
2. **자생성 확보(Viability):** 공공 구매가 아닌 민간 소비 기반의 시장 마련.
3. **애향심 고취(Place Attachment):** 예술 경험을 통한 지역 정체성 및 자부심 강화.

4.2. 세부 운영 메커니즘: 관람을 넘어 비평과 확산으로

단순히 무료 티켓을 배포하는 방식은 실패한다. 아비투스에는 '교육'과 '이해',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학습(Learn) - 관람(See) - 교류(Share) - 확산(Spread)*****의 4 단계 순환 모델을 따른다.

4.2.1. 사전 교육: 티칭 아티스트(Teaching Artist)와의 만남

- **내용:**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기 전, 지역 예술가(연출가, 배우, 큐레이터 등)가 학교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여 '프리뷰 클래스'를 진행한다.¹⁹
- **활동:** 작품의 창작 의도, 감상 포인트, 지역적 맥락(예: "이 연극은 우리 동네 개항장의 1920 년대를 배경으로 해")을 설명한다.
- **효과:** "아는 만큼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문화적 문해력(Cultural Literacy)'을 제공하고, 예술가와의 인간적 유대를 형성한다.

4.2.2. 단체 관람 및 현장 체험: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소비

- **내용:** 체험단원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연장이나 미술관을 방문한다. 단순 관람뿐만 아니라 백스테이지 투어, 리허설 참관 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 **효과:** 청소년기 특성상 또래 집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예술 관람을 '공부'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이자 '이벤트'로 인식하게 만든다.

4.2.3. 사후 활동: 비평과 대화 (After-Party & Critique)

- **내용:** 관람 후 인근 카페나 커뮤니티 공간에서 '예술가와의 대화(GV)' 및 '비평 토론회'를 갖는다.
- **활동:** "재미없었다면 왜 재미없었는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리뷰를 작성하여 SNS 나 지역 신문에 기고한다.
- **효과:**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비평가로 변모하며,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효능감을 느낀다. 이는 부르디외가 말한 '취향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이다.

4.3. 인센티브 시스템: 지역 문화 마일리지 (Local Culture Mileage)

참여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지역 경제와의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해 게임화(Gamification) 요소를 도입한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한다.²²

구분	내용	비고
적립 (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전시 관람: 1,000 P • 리뷰 작성: 2,000 P • 친구 초대: 3,000 P • 예술가 멘토링 참여: 5,000 P 	활동의 난이도와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사용 (Spe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문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 가맹점: 독립서점, 소극장, 약기사, 화방, 로컬 카페, 공방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제외, 지역 소상공인 우선 지정
환류 (Feedb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은 마일리지 매출을 지자체로부터 환전 • 청소년의 문화 활동 데이터 분석 자료로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이 시스템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 청소년은 "예술을 즐겼더니 우리 동네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긍정적 보상 체계를 경험하게 된다.

4.4.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우리 동네 예술가' 멘토링

지역 예술가를 단순한 강사가 아닌 '멘토'로 위촉하여 체험단과 매칭한다.

- **운영:** 예술가 1 인당 청소년 10 명을 매칭하여 '소그룹 멘토링' 운영.
- **지원:** 예술가에게는 창작 지원금 대신 안정적인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
- **효과:** 예술가에게는 정기적인 수입원과 미래의 팬덤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진로 탐색의 기회와 살아있는 예술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 사이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는 과정이다.¹⁶

5. 기대 효과 및 결론: '지원'에서 '투자'로

5.1. 정책의 기대 효과

5.1.1. 경제적 효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저하와 시장 형성

보물의 비용 질병을 극복하는 힘은 '지갑을 열 준비가 된 관객'에서 나온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지역 예술에 대한 이해와 애착은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된다. 체험단 활동을 통해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교양 있는 관객(Cultivated Audience)'은 티켓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지불할 용의가 생긴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낮추어(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비용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 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³

5.1.2. 사회적 효과: 지역 소멸 대응 및 정주성 강화

지역 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맺은 친구, 멘토, 지역 공간과의 관계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 된다.¹⁰ "우리 동네에 내가 아는 예술가가 살고 있다", "내가 자주 가는 멋진 갤러리가 있다"는 인식은

지역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닻(Anchor) 역할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장소 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타 지역 이주 의향이 낮다.¹⁴ 이는 인구 유출을 막는 정서적 방파제가 될 것이다.

5.1.3. 교육적 효과: 문화적 시민성(Cultural Citizenship) 함양

예술을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경험은 입시 위주 교육이 줄 수 없는 전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한다.¹³

5.2. 결론 및 제언: 문화 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지금까지 지역 문화 정책은 '공급'이라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과 같았다. 예술가 지원이 중심이었고, 시민은 그 혜택을 받는 수동적 대상일 뿐이었다. 이제는 그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시민(수요자)'이 중심이 되고, 예술가와 행정의 그들의 문화적 삶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 지역예술 체험단'은 그 전환의 시작점이다. 청소년들에게 지역 예술을 '발견'하게 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이를 통해 지역을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은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 향유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에게 투자하는 것이며, 지역 예술의 지속 가능한 시장을 개척하는 경제 정책이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힘으로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생존 전략이다.

우리는 더 이상 텅 빈 객석을 한탄하거나 서울로 떠나는 청년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지역의 소극장으로, 미술관으로, 거리의 축제 현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곳에서 피어나는 감동과 웃음 속에 지역 예술의 자생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급'의 시대를 넘어 '수요'와 '경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 자료

1. 인천 청년 문화향유 실태 연구 - 인천학연구 : 논문 - DBpia,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32588>
2. Baumol's cost-diseas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the performing arts: An analysis of German public theaters - EconStor, 2 월 10, 2026 에 액세스,

-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57133/1/627236812.pdf>
3. Baumol's cost disease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web.econ.ku.dk/ctk/Papers/Baumol_Final_Feb2015.pdf
 4. 11 Baumol's cost disease - James Heilbrun,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repub.eur.nl/pub/782/TOWSE%20EBOOK_pages0103-0113.pdf
 5. Revisiting Baumol's Disease: Structural Change, Productivity Slowdown and Income Inequality - Intereconomics | 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www.intereconomics.eu/contents/year/2023/number/6/article/revisiting-baumol-s-disease-structural-change-productivity-slowdown-and-income-inequality.html>
 6. Public Sector Productivity – managing the Baumol cost disease,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www.productivity.ac.uk/wp-content/uploads/2023/11/PIP025-Public-Sector-Productivity-FINAL-Nov-2023.pdf>
 7. Sustainable Social Spending and Stagnant Public Services: Baumol's Cost Disease Revisited - IDEAS/RePEc,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ideas.repec.org/a/mhr/finarc/urnsici0015-2218\(200712\)634_519sssasp_2.0.tx_2-x.html](https://ideas.repec.org/a/mhr/finarc/urnsici0015-2218(200712)634_519sssasp_2.0.tx_2-x.html)
 8. Baumol's Cost Disease: A Macroeconomic Perspective - NBER,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12218/w12218.pdf
 9. A Bourdieusian Latent Class Analysis of Cultural, Arts, Heritage and Sports Activities in the UK Representative Understanding Society Dataset - PMC,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0623679/>
 10. Pierre Bourdieu on education: Habitus, capital, and field ... - infed.org,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infed.org/dir/welcome/pierre-bourdieu-habitus-capital-and-field-exploring-reproduction-in-the-practice-of-education/>
 11. Finding 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to ...,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cdn.vanderbilt.edu/vu-my/wp-content/uploads/sites/249/2011/09/14093043/ManzoPerkins.2006.Neighborhoods-as-common-ground.JPL.pdf>
 12. Full article: Exploring multiple dimensions of attachment to historic urban places, a case study of Edinburgh, Scotland - Taylor & Francis,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527258.2023.2193817>
 13. (PDF) From place attachment to sense of belonging: Promoting good citizenship through civic education - ResearchGate,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71441953_From_place_attachment_to_sense_of_belonging_Promoting_good_citizenship_through_civic_education
 14. [논문]청소년의 문화활동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10875534>
15. [논문]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2104247985947>
 16. Explaining civic engagement: The role of neighborhood ties, place attachment, and civic responsibility - PMC,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9298745/>
 17. 인천연구원,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 매일일보,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08174>
 18. arte 라이브러리 : 통계·DB > 프로그램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lib.arte.or.kr/educationdata/board/ProgramCollection_BoardList.do
 19. Arts Education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www.arts.gov/sites/default/files/Research-Art-Works-Maryland.pdf>
 20. art education pedagogy and practice with adolescent students at-risk in alternative high school - A/r/tography,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artography.edcp.educ.ubc.ca/wp-content/uploads/2013/10/LisaKayDissertation.pdf>
 21. Using Cultural-Regional Arts Scenes to Frame and Understand Out-Of-School Time Arts Programs - WCER, 2 월 10, 2026 에 액세스, https://wcer.wisc.edu/docs/working-papers/WCER_Working_Paper_No_2023_2.pdf
 22. 1 월 1, 1970 에 액세스, https://m.seoul.go.kr/news/news_report.do?boardid=629